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일본편

15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

매년 연구발표전 통해 관람객과 호흡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은 작지만 강한 전문미술관이다. 오사카시 중앙공회당 건너편에 있는 이 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작고 단아한 건물이지만 소장 도자기는 손꼽힐 정도의 명품들이다. 동양도자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대변하듯 한, 중, 일 3국의 빼어난 조형예술을 보여주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장품들 하나 같이 각국을 대표하는 국보급 문화재들이다.

특히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청자, 백자 등 우리나라 도자기는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궁지와 함께 아쉬움을 준다. 동양도자미술관은 2천700여점의 방대한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 이 컬렉션의 핵심을 이루는 300여점은 우리나라 도자이다. 지난 1999년 재일동포 이병창씨가 중국 도자기 50점과 함께 기증한 이들 도자기는 한국을 제외한 해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방대한 규모다.

오사카시가 지난 1982년 스미토모 그룹으로부터 기증받은 1천여점의 아타카 컬렉션을 바탕으로 이 미술관을 세웠으나 도자전문가를 비롯 세계인들이 정작 눈길을 주는 것은 한국 도자이다.

이 때문에 미술관을 찾는 한국인 방문객들은 하나 같이 '이 많은 도자기를 우리나라에 기증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한·중·일 동양 3국 국보급 도자기 2,700여점 소장  
높낮이 조절·회전...관람객 눈높이 맞춘 전시기법 호평

외교관이자 재일교포 사업가였던 이병창씨는 재일교포들을 위해 평생을 수집한 도자기를 동양도자 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그는 재일 한국인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주고 세계인들에게 한국 도자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이 미술관을 택했다. 여기에서 동경에 있는 본인의 집과 땅을 한국도자기 연구기금으로 기증, 메세나를 실천했다.

그래서인지 기획 전시실을 제외한 10개의 전시실 가운데 한국 도자기 관련 전시실이 절반을 차지하는 5개다. 한국 도자기실에는 고려, 조선, 한국도자실, 이병창 컬렉션 등으로 나뉘어 고려청자, 조선분청사기, 백자 등을 전시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시대별로 구분된 한국의 도자기를 살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 도자기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의 도자기는 각각 3개와 2개의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어 한국도자기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동양도자미술관은 수준 높은 전시기법을 개발함으로써 또 다른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다.

이곳이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관람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것은 '도자기의 조형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술관의 운영방침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전시를 위한 전시에서 벗어나 최대한 자연스럽게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도자기를 관람객들이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전시공간의 선반을 낮추고 있다. 이 선반은 전시물의 특성을 고려해 높낮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는 도자기의 특성상 그림처럼 걸어두고 보는 게 아니라 방안 탁자 등에 놓고 보는 것이라는 관람자의 시선을 고려한 때문이다.

조각과 도자기를 회전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게 한 전시기법도 동양도자미술관이 25년전 도입한 방법이다. 2층 중국관은 인공조명을 피해 자연을 살린 환경

에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연채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작품이 전시된 공간의 천정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서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한편, 우천시나 흐린 날에는 인공조명을 가동하는 등 첨단 전시공간을 선보인다.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은 도자기 컬렉션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연구전시로도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미술관은 한, 중, 일 동양 3국의 도자기를 주제별, 제작기법별로 모아 상설전을 개최하기도 하지만 해마다 학예연구원들의 연구발표전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난다.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연구발표전은 학예원들의 연구결과를 전시로 보여주는 것으로 미술관측은 이를 통해 학예연구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전시 관람원이나 관람객들의 반응을 업무성과와 연관짓지 않는 등 자율적인 연구를 보장하고 있다.

데가와 테츠로 동양 도자미술관 학예과장은 "연구 발표전은 미술관의 핵심인프라인 학예연구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며 "전시 성과를 평가하지 않으면 전시의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직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이 소장한 도자기를 위로부터 중국 원대(元代)에 제작된 청화국모란문반(青花菊牡丹文盤), 고려시대에 빚어진 청자상감 모란문매병(靑磁象嵌菊牡丹文梅瓶), 일본 에도(江戸) 시대 작품인 색화모란춘문팔각호(色繪牡丹椿八角壺).

한·중 도자기 350여점 기증한 재일교포 이병창씨

컬렉션실 따로 만들어 극진한 예우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의 강점은 작품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바람직한 기증문화를 일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 한국과 중국 도자기 350여점을 이 미술관에 기증한 이병창(92)씨를 기리는 이병창 컬렉션실이 대표적이다.

1915년 전주에서 태어난 이병창씨는 1949년 주일 대표부 초대 오사카사무소장으로 일본에 부임한 후 평생을 일본에서 지낸 외교관이자 사업가, 도자기 연구자다.

이 때문에 동양도자 미술관은 '이병창 컬렉션실'을 철저히 기증자를 배려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컬렉션실 입구에는 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그가 작품을 기증한 배경과 성장과정, 업적 등을 수록한 안내판도 흉상 옆에 자리하고 있다.

미술관은 이를 통해 기증자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또 다른 기증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병창씨의 흉상

동양도자미술관은 또 도자기를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증자 명패에 새겨놓고 반드시 1년에 4차례 이상 기증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카다 야마 마비 동양도자미술관 학예원은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한 인사의 뜻을 받들어 일반인들에게 작품을 공개하고 기증자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이는 기증자에게 자긍심을 주는 한편, 일반 컬렉터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은 동양 최고를 자랑하는 한·중·일 도자기 컬렉션으로 세계 각국 도자기 전문가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featuring various film posters and the text '영화안내'.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극락도 살인사건' and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2'.

Advertisement for En Cinema listing movies like '동갑내기 과외하기' and '이장과 군수'.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눈부신 날에' and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2'.

Advertisement for Mudeung Cinema listing movies like '이장과 군수' and '천년학'.